

2016년도 오페라 창작산실 창작오페라 발굴지원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6년도 오페라 창작산실 창작오페라 발굴지원 지원심의
- 회의일시 : (1차) 2016. 11. 25(금) / (2차) 2016. 12. 2(금)
- 회의장소 : (1차) 대학로예술극장 리딩룸4 (2차) 예술가의집 세미나실1

○ 심의과정

2016년도 오페라 창작산실 창작오페라 발굴지원 사업은 22팀이 접수되었다. 심의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심의로 진행되었다. 창작자의 역량 및 발전 가능성(40%), 작품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공연작품의 예술성(30%)을 기준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심의를 진행하였다.

○ 심의평

이번 공모는 작곡가와 극작가가 한 팀을 이루어 제안한 하나의 오페라를 창작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으로써 총 22개 팀, 42명이(중복 지원 2명) 지원하여 1차 서류 심의와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 총 3개의 팀을 최종 선정하였다.

1차 서류 심의는 작곡 부문과 극작 부문, 그리고 기획/연출 부문으로 나누어 기본 역량에 대한 각 부문 심의위원들의 전문적 소견을 존중하여 6개의 팀을 선정하였다. 음악에 있어서는 오페라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표현력과 독창성을 염두에 두었고, 작곡가의 기존 활동경력 또한 주요한 기준이 되었다. 대본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구성 능력과 주제의 명확성, 음악극인 오페라 대본으로써의 특수성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검토되었다. 기획/연출 부문에서는 무대 구현 효과와 함께 설득력 있는 내용과 참신한 소재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였는데, 지원 작품들의 소재와 극적 형식이 비교적 다양해진 점이 고무적이었다.

2차 인터뷰는 각 팀의 창작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점검과 더불어 작곡가와 극작가의 긍정적인 협업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살폈다. 작곡가가 극의 핵심적인 주제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가와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작곡 기법에 대한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극작가가 또한 이에 대해 이해하고 상호 협조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지에 심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지원자들이 스스로 팀을 구성하여 지원하였음에도 상대 부문에 대한 계획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거나 그러한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팀들이 대부분이었다.

전반적으로 이번 공모에 지원한 작품들이 오페라의 장르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수작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심의위원 간 많은 논의가 있었다. 금번 선정된 작품은 그 가능성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판단된다. 선정된 작품을 통해 오페라 창작에 있어 음악적 완성도 뿐 아니라 이의 근간이 되는 적합한 대본 및 극작가와와의 긴밀한 협업 과정의 중요성이 확인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와 노력이 언젠가 이 시대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재와 형식을 갖춘 이른바 참신한 오페라 창작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되어 주길 또한 기대해 본다.

2016년도 오페라 창작산실 창작오페라 발굴지원 지원사업 선정 심의위원 일동